

‘민주주의 상징’ DJ 동교동 사저 매각 “허탈·분노”

지역 정치권, 비난 목소리 확산

“정치역사 깃든 곳... 보존대책을”
김홍걸 “사실상 민간기념관” 해명
김대중재단 등 재구매 방안 논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동교동 DJ 사저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강한 비판에 나섰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수 년 전부터 소유권 분쟁과 매각 위기에 몰린 끝에 지난달 초 모 사업가에게 100억원에 팔렸다.

매수인 측은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 사저 앞 유희부지까지 임대해 관련 사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교동 사저는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김 전 대통령이 입주 한 이후 서거할 때까지 머물던 곳으로, 독재정권의 가택연금과 사형 선고로 견디며 투쟁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부인 이희호 여사는 2019년 별세하면서 동교동 사저에 대해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되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면 보상금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김홍일·홍업·홍걸 3형제가 균등하게 나누라’고 유언을 남긴 바 있다.

다. 사저 매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주·전남 정가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 유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자신을 김대중재단 후원자라고 밝힌 김용임 의원은 “여야를 떠나 ‘김대중 정신’은 모든 정치인들이 받아야 할 표상인데, 작금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민주당 중진들이 김홍걸 의원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데, 조금 더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단순한 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역사가 깃든 곳이 아닌가.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전 국회의원은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우

선 국가유산청이 사저를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 서울시 등 관련기관이 개발 행위를 유보하고, 이후 국가 또는 서울시가 해당 부지와 건물을 재매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대통령의 가옥이 이미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선례를 보아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등록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매입해 이희호 여사의 유지대로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조성 보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매입자는 건물의 낡은 부분을 새단

장해 두 분 어른께서 계셨던 공간을 그대로 보존해주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민간 기념관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치권이 사전에 사저 매각 사실을 알고도 연락하지 않았다”며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에게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렸을 때도 ‘알아서 잘 정리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문희상 전 국회의장,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이사장과 배기선 사무총장, 정동영·추미애·김민석 의원은 지난 2일 긴급 모임을 열고 사저를 되사들이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폭염에 가축 폐사 속출... 도, 피해 최소화 ‘총력’

6만1천마리 등 5억7천여만원 피해 환풍기 가동 등 축사 온도관리 나서

전남도가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과 환풍기 가동을 비롯한 축사 내부 온도 낮추기 지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7월 평균 기온이 26.2도로 평년(24.6도)보다 1.6도 높았으며, 오는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이 33도 내외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이런 가운데 8월 초 현재까지 폭염에 따른 전남지역 가축 폐사 신고는 71호, 6만 1803마리다. 종류별로는 닭 17호 5만 2997마리, 오리 5호 7652마리, 돼지 49호 1154마리로 추정 피해액도 5억75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7월 시군, 관계 부서와 함께 폭염 피해 예방 대책 긴급회의를 열어 도-시군-축산농가 간 담당제를 운영, 폭염 특보에 따른 축사시설 및 가축사양 관리 요령을 지속 전파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가축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축산농가에서 가축 급수용 및 축사 분무용 물 부족 시 시



전남도가 축사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환풍기 가동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군 소방서에서 보유 중인 펌프차를 활용해 물을 공급하도록 소방본부와 협력체제도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가축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36억원 △축사 지붕 열 차단제 도포 지원 3억원 △가축 사료효율 개선제 32억원 △낙농가 환풍기 지원 8억원 등 총 179억원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도 축사에 물 뿌리기, 환풍기 가동 등으로 축사 실내 온도를 낮추고, 가축에게 신선한 물과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적기에 먹이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제15회 광주비엔날레 D-30... 홍보관 오픈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박양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 니콜라 부리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참여작가 등이 8일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D-30 홍보관 오픈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판소리-모두의 울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32개국 작가 72명이 참여하며 오는 9월7일부터 12월1일까지 비엔날레전 시관과 양림동 일대에서 펼쳐진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 ‘일자리 사업’, 전국 지자체 ‘대상’

광주시 ‘일자리 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한데 이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도 ‘우수상’을 수상,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5300만원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8일 서울 엘타워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24 전국 지방자치

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일자리대상’은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연계한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수여하

고 있다.

이번 수상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연계 일자리 창출 △신기술 창업기업 실증 지원 △산단 근로자 간편한 아침 한끼 지원 △구직단념 청년 등 은둔형외톨이 지원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공동 복지프로그램 지원 △대우위니아 사태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등의 정책을 추진,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공로다.

노병하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티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숯,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